

Coram Deo
우리는 예수사람 이에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기 도 회	김태영 목사
찬 양	Shem과 함께
대표 기도	이주호 형제
성경 봉독	다같이
말씀 선포	송요섭 목사
기 도 회	다같이
봉 헌 송	다같이
축 도	김태영 목사
광 고	문정환 형제
축하 순서	신민경 자매
빌 2:1-5	

청년부를 섬기는 사람들

지도 김태영 목사 부장 이혁주 장로
 회장 이수연 자매 부회장 문정환 형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대표 기도 및 봉사순

09월 23일	이수연 자매	박문영 자매
09월 30일	문정환 형제	이승환 형제
10월 07일	박문영 자매	이주호 형제
10월 14일	이주호 형제	정혜진 자매

Shem과 함께 배우는 새로운 찬양!**아름다우신**

Words and Music by 심형진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 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 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하리 - 라 아름다우신 - 오 놀라

 우신 - 형언 할 수 없는 사랑 - 오 위대

 하신 - 하나님 의 사랑 영원히 찬양 - 하리 -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 도 -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수 없네 - 주와 - 아름다

모임시간 안내

- ▷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청년부실
- ▷ 청년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시/청년부 교사실
- ▷ 찬양팀 모임 토요일 오전 10시/청년부실
- ▷ 문서팀 모임 토요일 오후 5시/청년부실
- ▷ F.C 예배 모임 토요일 오전 (시간은 때에 따라)
- ▷ G.S 선교팀 모임 수요일 오후 8시 30분

문정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광고들!

1. 오늘 설교는 송요섭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2. 2007 청년부 비전축제가 있습니다.

일시 : 2007년 10월 21-11월 11일

주제 : 빛을 들고 세상으로(사60:1)

3. 비전 축제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봉사와 전도 신청하신 분들

청년부실로 모여주세요.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모두 함께 모여 준비해요~
(팀원들도 함께 모여주세요)

4. 순장님들은 주간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주보를 만드는 사람들

: , , , , , ,
 문서 선교팀 커뮤니티

www.coram.kr

이제 쉽고 편하게! 코람닷케이알~

기독의 무게 - 장성산 칼럼



2차대전이 막 끝났을 무렵, 유럽의 페어마미 속 한 거리에 여인이 잡화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성탄 선물을 준비하려 잡화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죄송합니다. 실은 저에게 돈이라고 한 푼도 없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대답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여기 저울 위에 올려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봅시다. 저울 능그마큼 내가 물건을 주리라.” 사실 주인은 비꼬는 톤으로 그냥 단적 본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침 제가 어제밤 기도문 한 편을 썼습니다.”하고는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집어내어 저울 위에 올려봅니다.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면서 아무 말없이 저울 반대편에 빵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울이 끔찍도 아찌 않는 거였습니다. 주인은 조금 상기된 얼굴로 다시 떡가지 물건을 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 여인 앞에서 부끄러워 오기가 창피하기도 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자, 여기 봉투에 당신이 필요한 걸 담아서 빨리 여기 나가시오. 바빠 죽겠는데 더 이상 계롭이지 말고 빨리 가요.” 그 여인은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로 물건을 담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은 그 뒤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였지만, 금방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어 저울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울은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인은 혼자서 몇 번이고 이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화로 보는 복상

무 른 이's Illustr 2007
www.cyworld.com/kneeproy
Unauthorized duplication is
violation of copyright law.
Don't distribute without permission.

여 와 기 뻐 하는 것 이
너희 힘 이다.

느혜미야 8장 10절에
너무 기뻐 괄박괄박

한나마 끌 봐
부탁드린다!

힘이 불끈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가득 찬 무릎 양 옆에
당신의 작은 팔로 헹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경험하며 또 경험하게 하실

나의 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해요.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힘 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기뻐 회자라.
시편 81:1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줄 거워하고 기뻐하라.
세상과 함께서 큰 일을 하셨다.
요한 2:21

그러나 소식의 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줄 거워하게 하라.
그들이 뛸 듯이 기뻐하게 하라.
시편 68:3

무 른 이 네 ♥ 이 시

복상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사람 아자!

기독의 무게 - 장성산 칼럼

어떻게 그 여인이 자신의 가게에 왔을 때 하필이면 그동안 아무런 말썽이 없던 저울이 고장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동안 저다보지 않고 먼저 두었던 그 여인이 저울에 오래 놓았던 그만 편지봉투 속의 기도문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런 짧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나요? 하루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보내습니다. 또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한 달을 보내고, 그리고 한 해를 보내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주님,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먹이를 예비하시고, 거처를 어락하시는 주님. 날마다 세상은 우리 삶과 함께 세상의 저울을 우리 앞에 내밀고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것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마땅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 주시며, 공급해 주십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이 무게 없음이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있고 가질 수도 있는 무게가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찌 우리와 주님과의 고제를 저울로 쟁 수 있까요? 이 땅의 그 무언이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무게만큼 무게울까요?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닌,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지 마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역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뜨이 하늘에서 이른 거 갈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13]